

소의 혀를 자른 범인

고려 때 이보림이 다스리던 고을에서 어느 날 한 농부가 찾아와 이렇게 호소하였다.

“사또, 이웃집 사내가 저희 집 소의 혀바닥을 잘랐습니다.”

원님은 곧 그 이웃집 사내를 잡아들였다.

“너는 어째서 남의 소 혀바닥을 잘라버렸느냐?”

하고 호통을 쳤다. 그러나 잡혀 온 사내는 펄쩍 뛰며 말했다.

“아닙니다.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.”

하고 펄쩍 뛰었다.

말 못하는 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몹시 난감해진 원님은 한참을 궁리하다가 아전을 시켜 그 혀 잘린 소를 끌고 오게 하여 하루 동안 물을 먹이지 않았다. 소가 몹시 갈증이 났을 때 원님의 물을 준비해 놓고 그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렀다.

“너희들은 한 사람씩 저 물통의 물을 소에게 주는 척 하다가 소가 물을 마시려 하거든 먹이지 말고 물러나라.”

이렇게 분부했다. 한 사람씩 그 분부대로 하니까 소는 점점 더 갈증이 심해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. 그때 원님은 잡혀온 사내에게 명령하였다.

“이번에는 네가 할 차례다. 소에게 물을 먹여 보아라.”

그 사내가 물통을 들고 소에게 다가갔더니 소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도망가려고 하였다.

“네 이놈, 소가 너를 저렇게도 무서워하는데 그래도 거짓말을 할 것이냐?”

그 사내는 그만 어쩔 수 없이 땅에 엎드려 고백하였다.

“그 소가 저희 밭 콩을 먹었기에 화가 나서 혀를 잘랐습니다.”